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제주 4대 환경정책 '제자리걸음'

<세계환경수도·환경보전기여금·곶자왈보호구역·제주국립공원>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 "진척없어" 대책 촉구
하는분화구 복원 7년째 표류
전 부지사 "중앙협의 더 강화"



강성민 의원



강연호 의원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들이 진척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이며 제주도의회는 못매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속개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 사업을 비롯해 하는분화구 복원사업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호된 질책을 쏟아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시 이도2동)은 원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주요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

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18.7%)이며,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은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고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 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은 법적근거 마련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도 도민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으로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좀 더 강화해나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7년째 지지부진한 '하는분화구 복원사업'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때 채택된 제주형 의제 5개 가운데 유독 하는분화구 복원만 실적이 없다"며 추궁했다.

이에 전 부지사가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중앙부처도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렇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지금에 와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토지주와 하는분화구 법국민추진위원, 관계전문가들과 한 자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화구 복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무더기 적발된 가짜해녀... "안일 행정" 못매

농수축경제위원회

관리감독 시스템 검토 주문
민군항 무빙위크 부실 질타



문경운 의원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 관리감독 문제와 제주 민군복합항 무빙위크 부실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속개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의 전직해녀 실태조사(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해녀증을 소지한 만 65세 미만 전직해녀 대상) 결과 도내 해녀증 발급자 621명 가

질병여부와 몸상태 그리고 잠수여부를 연계하는 처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립하면서 최대의 지역수혜사업으로 자랑했던 크루즈 인프라 시설이 태풍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무빙위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우려했던 무빙위크가 결국 1년도 안돼 하자보수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험료 등 하자 보수에만 약 36억원이 소요됐고, 올해 태풍에 해군초소 출입문 파손으로 무빙위크 일부구간의 해수침수피해 발생 등 해마다 시스템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른지기자

매년 줄어드는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집값 올라도 지원기준 동일
경로당 신·증축예산 들쭉날쭉



고대순 위원장



한영진 의원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 문제와 들쭉날쭉한 경로당 신·증축사업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대순)는 21일 제주시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고대순 위원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이 최근 3년간 매년 100명 정도씩 줄어 들고 있다"며 "이는 임대료에 따른 주거비 지원액이 최근 5년간 동결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이 주거비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에도 5년간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에 행정의 간과했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제주시의 경우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급대상과 지원액은 2017년 1270명(7억6300만원), 2018년 1167명(7억3500만원), 2019년은 8월말 기준 955명(6억80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에서 200

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2017년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보다 약 200명 정도 더 많았으나 2018년은 100명 정도로 간극이 좁혀졌으며, 2019년은 오히려 역전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더 많아졌다.

고 위원장은 "기존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해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진 의원은 경로당 신·증축사업 지원 시 신축보다 증축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등 세부기준이 없어 경로당 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있는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제주도는 경로당 신축, 증·개축, 재축에 대해 전년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신청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마을에서 신청하는 예산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오는 30일 진행

김성언(사진)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근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위원장에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부위원장에 오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으로 강철남·홍광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오영희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문종태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경운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 특위는 30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효돈초, 중학교와 제주제일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신화정보회장, 효돈동 연청회장, 월라봉영농조합 대표이사, 효돈농협조합장, (사)제주감귤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른지기자

"해군기지·제2공항 등 국책사업 집중 서귀포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행정자치위원회

옛 탐라대 활용 감감 지적

제주해군기지와 제주 제2공항 등의 굵직한 국책사업이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국책사업 등으로 발생한 갈등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1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주 제2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



현길호 의원



차남수 의원

는 갈등이 사라졌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관리 등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앞으로 공공분야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작개편을 통해서 서귀포시가 갈등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이번 조작개편안에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차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도립국제대학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서귀포시에 제안했지만 이에 따른 답변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방치된 탐라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서귀포시에 건의한 것"이라며 옛 탐라대학교 부지와 관련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 시장은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면서 "서귀포시 입장에서 하원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불만이 많다. 또 외국대학만 유치할게 아니라 다른 방안들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ly9456@ihalla.com

제7회 제주NIE대회 수상자 명단

	초등부	중·고등부
대상	삼성초 6 지하영	아라초 3 문예빈
금상	삼성초 6 송예림	신성여고 2 정윤지
은상	삼양초 2 김효린	사대부고 2 이다연 탐라중 1 박규영 한림고 1 김효진
동상	한라초 6 문준서 삼성초 6 김서연 표선초 5 배보운 한라초 4 송지나	제주외국어고 2 성경운 신성여고 1 김수빈 제주외국어고 2 강제혁
장려상	백록초 2 임현지 삼성초 4 김채연 백록초 6 강현규 한라초 2 문채원 제주동초 6 이효민 교대부설초 5 조하준 백록초 3 이안나 한라초 3 장민정	한림고 1 김유빈 노형중 1 이채운 신성여고 1 김효린 신성여고 1 오지효 제일고 2 김승운 제주여고 1 김예은 제주여고 1 김소형 노형중 1 김아린
지도 교사상	신성여고 제남모	

제주NIE학회

제주 NIE 학회에서는 NIE 청소년교실 강좌도 운영중입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경우 박진희 부회장님(010-8800-6274)께 문의주세요.

그랜드보청기

기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15,000원
삼총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제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천혜향(무독) 한라봉·탐나는봉·황금향 미니향·아마나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라실생·궁천(궁천번이치) 하계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모

010-2691-1883
010-3055-188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